

주안에게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9
Sep. 2023
Vol.11 No.09

통권 109호

- 중남미 선교 보고
- EM·KM 연합수련회
- 주안에라이프 개강
- 교육부 / 한글학교 소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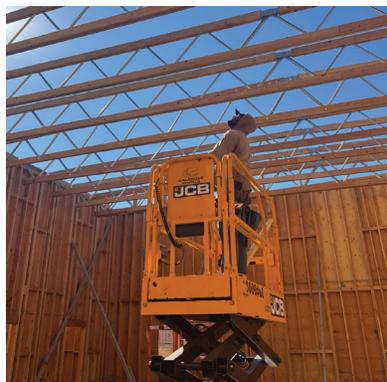
주안예교회 소채플 건축공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 양영 기자>

‘은혜의 표징’ 축복의 터전

■ 소채플 교육관 4동 건축

몇 주 전부터 ‘소채플-교육관’ 신축 건물이 모습을 나타내어 주말마다 차를 주차시킨 후 공사장을 먼저 바라보며 얼마나 변했나 살피게 된다.

보통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할 땅, 건축 비용 그리고 건축공사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주안예교회 ‘소채플-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여 년 전에 땅을, 4년 전에 비용을 그리고 건축할 집사님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 주안예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다. 그리고 건축하



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건축공정 중 철근콘크리트 작업과 양생(Curing of concrete)이 건물을 받치는 기초를 조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콘크리트 양생이란 콘크리트가 갈라지지 않고 단단하게 굳도록 표면에 물을 뿌리며 온도와 햇볕을 조절하는 일이라 한다.

이번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것은 위의 3가지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요한 건축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징을 보여주셨다. <2면에 계속>

| 나형철 기자 |



기도와 찬양,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 EM·KM 청년부 연합수련회

9월 2일~4일 한어 청년부 코람데오와 영어 청년부 EM이 연합 수련회 잘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언어의 커뮤니티 공동체, 영어 청년부 EM과의 연합을 통해 한어 청년부 코람데오와 묶어 주셨고, 이는 곧 하나될 수 있는 청년 연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이전부터 계획하였던 많은 이벤트들이 EM과의 연합으로 전환되고,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이해하기 위한 모임들로 발전하였다. 수련회 전까지 담당 부서/커뮤니티별로 함께 팀을 이뤄, 리더들 간의 대화의 창을 열어 주셨고, 쉬지않고 열심히 계획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어, 각자가 기쁨과 기대감으로 수련회 날을 맞도록 만드셨다.

9/2 토요일 아침, 10시에 맞춰 벨리채플로 많은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개회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가벼운 점심으로 김밥과 라면으로 시작하고, 짐을 싣고 드디어 출발하였다. 어색할 수는 있었지만, 다들 한발짝 나아오며 배정된 그룹 및 운행 차량 멤버끼리 사진으로 추억을 쌓아나갔다.

목적지에 도착해 설레임을 뒤로하고 짐을 챙겨 간단한 수련회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들은 후, 배정된 캐빈 속

소에 짐을 풀고 너나 할 것없이 가져간 짐들을 일꾼개미처럼 줄지어 빠른 속도로 옮겨 다음 일정을 준비하는데 마음을 함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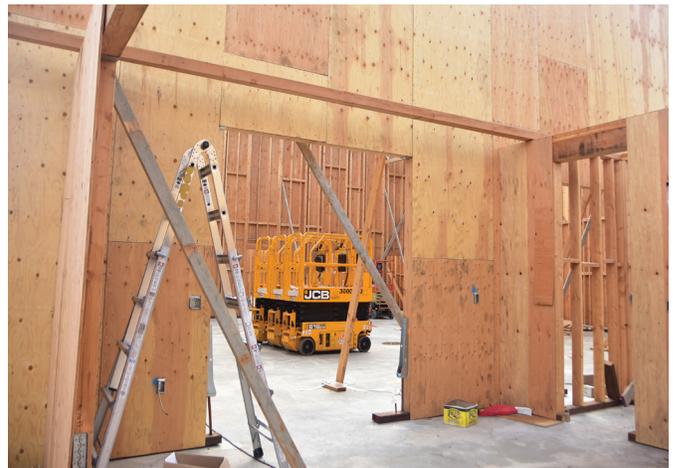
커뮤니티별 workshop을 통해 진행되었고, 코람데오는 '생의 목표 설정'이라는 주제로 벤전2:9 말씀에 따라 각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말씀 위의 스스로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맛있는 저녁시간, Chicken Fajitas 로 멕시코에서의 기분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또, 짧지 않은 거리를 직접 운전해서 간식을 양손 한가득 사 들고 오신 많은 분들의 사랑을 통해 더 위도 날리고, 출출할 어린 양들의 배도 채울 수 있게 야식도 갖고 와주셔서 참 감사했고, 자라나는 EM과 코람데오의 미소를 짓게 만드셨다. <6면에 계속>

| 안세진 성도 |

<1면서 계속> 지난 8월 콘크리트 공사 중 양생을 위해 물을 뿌려야 하는 날에 하나님은 깜짝 단비를 흠뻑 뿌려주셔서 갈라짐을 막고 온도 조절과 햇볕을 차단해 주셨다. 공사 담당 집사님의 의하면 2, 3일 전에 그 만한 양의 비가 왔다면 밀 부분을 다 파내고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물을 꼭 뿌려야 되는 날에 비를 내려 주셨다고 감사해 했다. LA 지역에 8월에 비가 내린 것은 84년 만에 처음이라 하니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따름이다.

또한 감사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도 벽돌 하나라도 힘을 합해 건축에 참여하여 장차 성인이 되어 이 건물을 볼 때에라도 애착심과 자부심을 갖게 인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야간에 “지킴이 봉사”를 통하여 건축을 돕고 안전한 가운데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관심과 기도를 이어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는다.





230여명 등록... 보람과 기쁨 넘치는 배움의 장

■ 주안에라이프 개강

지난 9월 20일 2023년도 하반기 ‘주안에라이프’ 활동이 주안에교회 친교실에서 230명이 출석하여 개강예배로 시작되었다.

오전 9시 이미란 전도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강예배에 공태용 장로의 기도와 박민재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9월 20일부터 11월 29일 까지 계속될 ‘주안에 라이프’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데 개회 예배후 전체 맨손 체조를 함께하고 각자 희망하는 클래스에 가서 1교시 2교시 공부를 하게 된다.

클래스는 성경공부, 스마트폰, 색소폰, 붓글씨, 과일나무 키우기, 오토하프, 탁구치기, 배드민턴 등 18개 클래스가 운영되어 참가자들이 건강증진과 취미 활동을 하게 된다.

개회 예배 전 8시 30분부터 간단한 아침식사와 음료가 제공되고 12시 30분

부터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게 된다. 공태용 사역 장로는 해마다 출석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 하반기는 전반기보다 100명 가까이 인원이 늘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한다.

식당 봉사국 장로의 말에 의하면 현재 20명의 봉사자들이 매주 나와서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10여명 이상의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 나형철 기자 |

열정과 사명감으로 복음의 빛을 밝힌다

■ 중남미 선교지 순방 보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선교사역의 내용과 선교지 현황을 살피고 배우며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향후 우리 주안에교회 선교계획 수립에 참고할 목적으로 선교지를 다녀 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9/5~9/13/2023(9일간) 김현권 목사, 김경배, 김경일 장로 3명이 남미지역 4개국 니카라과, 페루,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고 계신 5분의 선교사님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지역이 넓고 비행시간은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셔서 무리없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일행을 매우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주신 선교의 소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선교사역의 현황을 함께 돌아보며 사역의 진행상황을 돌아볼 때 충성되이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섬기시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여건은 다르지만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을 도구로 사용해서서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선교사님들이 빈민지역의 열악한 상황이지만 잘 준비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열심히 선교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신뢰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8면에 계속>

| 김경일 장로 |

■ 교사일지

주안에 자녀, 하나님 용사들 무럭무럭

지난 수년간 아이들과 함께 하며 순간순간 깨닫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은 잠시 놓쳤던 시선이 아이들과 마주칠때 "어? 벌써~"라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주 빠르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은영 권사

제가 어렸을 적 어른들이 요즘노래는 너무 빨라 가사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셨었는데 그 말 뜻을 요즘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아~ 우리엄마 기분이 이랬구나' 합니다. 수천년 전 변화의 상형문자에도 말세라는 한탄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은 정말 무섭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런 세상의 주인이 될 주일학교 학생들의 영적 무장은 참으로 중요하고 엄중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탈바꿈하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이نام직한 세상 것들과 견주어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세상보다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사님들의 고군분투가 있고, 선생님들의 분주한 주일은 열심을 내어 뛰고 달려도 항상 부족했다 자평합니다. 지난 8월 많은 ICPower(5학년) 학

생들이 ICY로 진급했고, IC Now(3학년) 학생들은 IC Power로 진급했습니다. 같은 ICKidz 에서의 진급에도 긴장하는 학생도 있고 ICY 로 올라간 학생들이 본가를 찾아 몇주동안 점심을 같이 먹겠다고 찾아오는 모습은 절로 엄마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 하기 위해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단련되어진 아이들은 어느새 바뀐 예배장소와 시간에 적응하여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사를 준비하다보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지만 벌써 3분기가 지나가고, 2023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IC Kidz 는 앞으로 할렐루야나잇 행사가 있는 10월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에는 주안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들을 배울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12월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악한 세력에게 대적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용사가 되기를 독려하며, 참된 빛되시며 영원하신 창조주되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아기예수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돌리는 귀한 시간을 준비할 것입니다.

2세 양육에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여러 선생님들 중 한사람으로서 우리 주안예교회 한 가정 가정의 무한한 영적인 성장을 기도하며,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교회 어른들께서 먼저 선 자로서 아직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 영혼을 향해 마음을 다한 배려와 사랑에는 과함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영적성장은 부모와의 공감을 기반으로 부모님과 함께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추석 송편 빚고 김치 만들고

■ 한글학교 체험학습

새학기 시작과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주안에 한글학교(교장 장정보 권사)에서는 한국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달콤한 사과로 김치 담그기와, 고은 빛을 담은 송편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사과를 썰고 양념을 버무리고 서로 맛을 보며 이웃이 함께 모여 김장을 담그던 옛선조들의 정과 공동체의식을 배우고 새벽 일찍 LA에서 공수해온 갓 내린 떡과 고물로 직접 오물조물 만지고 빚으며 예쁜 송편을 빚어야 예쁜 아이낳는다는 옛 어른들의 훈수도 배우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일상에서 경험해 보기 힘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말과 글이 아닌 경험과 추억으로 한국을 배우나갔다. 또한 한글학교에서는 이번 학기동안 윗반 아랫반 아이들이 함께모여



탈춤, 케이팝 등 문화활동도 함께 배우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하여 학기말 학부모님들께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이현영 기자 |

■ 새가족 소감

하나님 주신 시간표를 따라...

저는 30년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만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주안에 교회의 문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었던 그 첫날의 저의 기억은 마치 오래동안 섬겨왔던 나의 교회처럼 전혀 낯설지가 않고 편안하고 기뻐합니다.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신 여러 성도님들과 새가족 국 장로님, 권사님 내외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환 권사

무엇보다 강단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목사님의 모습과 전하시는 그 깊은 은혜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의 감동은 저에게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여정을 "주안에교회에서 하리라" 라고 망설임도 없이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표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저의 신앙적 매너리즘과 생각의 타성을 벗어 버리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지고 행복하게 주안에교회에서 하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와서 돌아켜보면 저는 교회만 오래다니 그 저 맛있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장로로 섬기며 교회의 대소사를 관여하며 목사님의 중요한 동역자로 섬기던 남편의 등 뒤에 숨어 적당히 교회 생활을 즐기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큰 산처럼 여겨져 왔던 남편과의 사별은 나로 하여금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 없고 외로운 모습으로 상실감에 빠져서 보이지도 않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진듯 해매기도 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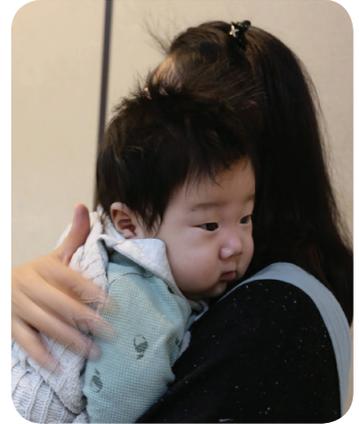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동행 하시며 위로해주시고 때에 따라 피할길을 주시사 자유하게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안에교회와의 만남은 저에게 축복이며 앞날의 벅찬 기대감으로 부풀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더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를 어린아이처럼 돌봐주신 권사님 또 우리 목장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사랑과 웃음으로 행복을 매주 나누어 주시는 교우님들께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 요계벳 감사글

요계벳 선생님 고맙습니다

작년 10월에 아기를 낳고, 처음으로 3개월 된 지온이와 함께 교회에 갔을 때에는, 불안한 마음에 아기방에서 지온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온 집중이 가있던 저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말씀이 하나도 기억 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한주를 말씀과 점점 멀어지며 보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니, 교회에 가는 목적을 상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상의 끝에 바로 요계벳에 지온이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지온이를 처음 맡길 때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가 잘 있을지, 울고 보채고 있지는 않은지, 온 신경이 떨어져있는 지온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지온이를 데리러 갔을때에는 요계벳 선생님의 품에 편안하게 꼭 안겨있는 지온이를 보았고 단번에 우려했던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갈 때마다 지온이를 기억해주시고 한 주도 빠짐없이 늘 밝고 반가운 얼굴로 저희 부부와 지온이를 맞이해주시는 요계벳 선생님들 덕분에 저와 남편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말씀을 반석삼아 한주를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요계벳에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은 매 주일 아침일찍 교회에 나와 1부를 드리고 아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섬김을 위한 회의와 준비로 늘 분주하심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단순히 봐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릴지라도 그 어린 영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예배를 준비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며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 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요계벳 선생님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 구원혜 성도 |



■ ICY Gathering

9월 23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크리스목사님 댁에서 ICY 학생들 친교모임 겸 삼겹살 파티를 가졌다.

한달 전에 ICY 로 올라와 아직은 서먹서먹한 6학년 학생들과 친해지고, 여름방학이 끝난 후 시작된 새학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모였다. 삼겹살도 구워먹고 모여서 게임도 하면서, 리더들과 학생들이 서로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다.

■ 연합수련회



섬김과 협력 통해 언어 · 문화의 벽 사라져

〈2면서 계속〉 든든한 식사 후, 저녁 Worship 시간이 되었고, 찬양팀과 미디어팀의 뜨거운 열정 넘치는 분위기와 더불어 크리스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열띤 기도시간을 통해 후끈 달아올랐다. 성령의 불씨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로 이어지며 세상을 향했던 시선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부르짖음의 귀한 시간들로 채울 수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연장되었던 기도 시간이 끝나고, 피곤함도 잊은 채 액티비티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룹별로 모여 한국어와 영어로 주고받으며 준비된 게임들로 젊음의 에너지가 수련회장을 뚫고 하늘로 솟았으며, 형형색색의 야광봉을 몸에 매달은채 추억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를 하며 EM과 코람데오의 한결을 더 가까워져 갔다.

주일 아침, 기상 국민체조를 시작으로 몸을 깨우고, QT시간을 통해 간단하게 말씀 묵상을 하며 정신을 깨우고 난 후

아침식사 시간을 가졌다. 든든하게 먹고 따스한 햇살 속 잔디밭에 모여 하나 되는 신문지 열차 게임도 하고, OX 퀴즈도 풀면서 액티비티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주일예배가 시작되고, [총돌]이라는 제목의 담임목사님 영상설교에 따라 준비된 영어자막을 보면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준비한 손길이 빛 났으며, 언어의 장벽을 한 겹 벗겨내는 귀한 달란트의 쓰임의 역사였다 싶었다.

영적양식으로 가득 채운 후, 햇빛 짙은 가운데 Zipline 과, 암벽타기, 농구, 수영장 액티비티와 그룹별로 사진 찍는 여러 미션들을 통해서 서먹했던 이들이 사진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되어가는 시간을 갖고,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함으로써, 나의 방식을 잠시 내려놓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되어 캠프파이어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기타

선율에 맞춰 찬양을 불렀고, 삼삼오오 모여 불명도 때리며, 시간가는 줄 모른채 미처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계속 이어갔던 것 같다. 마지막 밤이라 아쉬웠던 청년들은 늦은 시간까지 야식과 게임으로 한데 모여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갔다.

마지막 날 각자의 시간들을 나누기 위해 동그랗게 모여 앉았다. 하나님을 만난 시간,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본 시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등 많은 각자의 경험들을 나누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귀한 연합의 자리, 하나된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같이 행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교회로 이끄셨고, 이런 시간부터 미리 준비해주신 따뜻한 국물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늦게까지 정리에 힘쓴 청년 모두가 끝까지 하나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 수련회 준비팀 초대

2023년 9월 17일 저녁, 정현철 집사님 댁에서 함께한 코람데오 & EM 수련회 준비팀 식사. 정 집사님 가정의 초대로 귀한 섬김을 통해 마음도, 배도 풍성한 식사로 채워가며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며 애썼던 지체들과 교제하고, 제작된 수련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이성배 성도 |

 연합수련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안에 공동체 은혜 충만

한 말씀을 뜻대 삼아 달려가는 우리 주안예교회의 코람데오와 EM 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연합수련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코람데오와 EM 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향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많은 깨달음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언어와 문화에 차이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에 기쁨과 화평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함께한 모든 예배와 활동 교제 시간 가운데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많은 헌신과 섬김 기도와 관심으로 협력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안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엡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코람데오와 EM 이 함께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우리가 더욱 힘써 지켜 나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도 힘 쓰는 귀한 지체가 모두 다 되길 소원 합니다.



송영민 성도

The Best Moment of 2023

My experience going to the EM/Coram Deo Retreat was honestly the best moment of 2023. I met the most amazing people and had the best experience with God. Ever since I was a baby, I have always attended church and Sundays were always reserved for God. However, when the pandemic hit, everything changed. Church started being on Zoom and it started becoming so easy to take service on my bed. After a while, church was no longer a commitment for me. Fast forward three years, I ended up at the EM/Coram Deo Retreat. Initially, I went to find my community and explore new friendships. However, I had the chance to reevaluate my faith and reflect on my past without God. I thought I would be able to restart my relationship with God right where I left off. However, I was so wrong. By the welcoming presence of this community during this retreat, I was finally able to see where I stood with the Lord. It was a humbling time but I am very grateful that God allowed me to go to this retreat. Through this amazing experience, I can proudly say I have found a community that will be God driven and continue to challenge me everyday.



Janice Jung

Unexpected Harmony

In today's world where God's people continue to be divided by differences, the Holy Spirit has shown ICCC the power of unity and collaboration and just how truly transformative the Lord works within our community. Such was the case when EM and Coram Deo, came together for a joint retreat under the theme "One Body, One Spirit."

One thing I'm sure everyone could agree on is that the retreat's most powerful moments were the joint worship sessions. EM and Coram Deo members joined together in the blending of worship styles, from Korean hymns to American contemporary praise, which allowed for the creation of a rich tapestry of worship like no other. In those moments, it became clear that the true essence of worship is not determined by the form but by the heart's devotion.

Beyond worship and praise, we made friends. We discovered common interests and shared values, only encouraging our two communities to collaborate in the future.

I'm sure the unexpected crossover collaboration left a legacy for our church, illustrating the potential and power of unity. We have no one to thank but God. #GODDID



Minhyuk Chang

■ 중남미 선교지 순방 보고

페루·파라과이·아르헨티나 등 활발한 현지인 사역

〈3면서 계속〉 다음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니카라과 이필우, 이진경 선교사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중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훈련, 언어 훈련 등을 마치고 니카라과에서 7년째 선교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니카라과는 사회주의 국가로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고 일부 기독교 대학 폐쇄, 2,300개 NGO 단체 허가를 취소하는 등 복음 전파의 문이 좁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필우 선교사는 현재 현지 한인교회 주일 성경공부 인도, 주중 2개 공립학교에서 성경 수업진행, 주중 1일 현지인 교회(25명) 성경공부 인도, 제자훈련, 원주민 지역 선교활동 등 매우 바쁘고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페루 박화균 선교사는 한국에서 10년, 미국 LA에서 20년의 목회 경험이 있고, 55세에 선교사로 파송 받았습니 다. 그러나 빈민지역에서 불과 7년의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사역이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현지인 교회 목회(성도 80명), 15명에서 60명의 성도로 예배하고있는 5개 현지인 지교회 개척, 신학교육을 통한 사역자 및 리더 양성,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크리스찬 스쿨(개교 4년차 220명), 제빵공장(1일 2,500개 생산) 운영, 학교 교사, 빵공장, 사역자 등 급료를 지급하는 직원이 총 50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빵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빵은 매우 우수한 품질로 일부는 빈민지역주민에게 원가 판매하고, 학교급식, 주일 개척교회 간식, 주중 전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스쿨은 수학경시대회, 제



식훈련 경시대회에서 다수의 수상으로 명문학교의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박승일 선교사는 한국에서 대학생인 21세에 파라과이로 이민하여 현지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현지교회 부목사로 섬기며 소명에 따라 선교사역을 감당하던 중 선교사로 서원하고 준비 중이던 현지 변호사 최원영 사모를 만나 부부가 되어 함께 선교사로 파송 받아 선교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교회에서 협동목회하며 말씀과 성경공부 인도, 사모는 주일학교 예배 및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스쿨(믿음과 소망학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임 선교사를 통해 파송교회 뉴저지 연합교회가 잘 준비한 학교 건물이 있어 유치원 2반, 1-4학년 총 120명의 학생이 수업 중이며 매년 한 학년씩 확장될 예정입니다.

파라과이 한소용 선교사는 Asuncion 국립의대에서 공부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사 자녀인 장은혜 사모와 함께 16년째 선교에 헌신

한 선교사입니다.

한소용 선교사는 파송교회가 없는 상태이며 현지인 교회(25명)를 목회 중입니다. 언어 능력이 탁월하여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포르투갈어, 구아라니어 등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선교집회 통역, 스페인어 서적 번역, 집회 찬양인도, 성경공부 순회지도 등 열심히 선교활동에 임하는 미래에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 영커플 선교사입니다.

아르헨티나 박성흠 선교사는 중 3때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하고, 3년 뒤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여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현지에서 신학대학 졸업, 한국에서 총신 신학석사 후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파송 받았고, 미국 Fuller University 선교학 박사 학위 후에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 순회 선교사로 섬기며 남미지역 목회자 훈련, 아르헨티나 선교협력기구 분과위원장, 디나 목회신학원, 아르헨티나 퍼펙티브스 사역, 남미 지역 선교사 양성 및 파송 등의 선교사역을 27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조용득(미얀마)

지난 8월 12일 노방전도 중 교통사고를 당해 미얀마 병원 에서 치료하던 중 현지의사의 권유로 급하게 한국으로 옮겨와 인천 이룸병원에서 입원치료하고 4주만에 퇴원하였으나 3개월 더 통원치료하라고 병원장님이 권하였으나 선교지를 너무 오래 비울 수가 없어 10월 25일 선교지 복귀 비행티켓을 끊었습니다.

병원치료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미국 주안예교회, 방콕한인연합교회, 대구성빈교회, 청송안덕제일교회, 지인분들의 사랑의 손길들위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의 주 사역은 미얀마에 성경을 배포하는 것입니다. 미얀마 교회성도들의 90%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국가로 자국내 성경인쇄와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성경 나눔 운동본부로 사용하던 사무실이 미얀마 양곤의 번두리로 교통이 너무 좋지 않아 현지인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책을 방문 수령하기가 너무 어렵고 지리적으로도 열악하여 교통이 좋고 지리적으로 방문하기 쉬운 장소로 10월 30일-11월 5일 경에 이전 하기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중남미 선교지를 돌아보고/ 김경배 장로



① 공립학교 · 원주민 선교
니카라과 이필우 · 이진경 선교사

김현권 목사님과 김경일 장로님과 저는 교회와 교우님들을 대신하여 중남미 4개국을 돌며 5분의 후원 선교사님들을 찾아가 현황을 살펴보았다. 떠나기 전 ‘창립 10주년 선교세미나’에 이어진, 담임목사님의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선교사적 일상의 삶’에서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담담했는데, 주일예배시 파송식까지 받고 보니 적잖은 부담도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첫 방문지는 이필우 이진경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하고 있는 니카라과였다. 미국에서 공부한 그들은 이현수 목사님의 주선으로 만나 결혼을 했다. 청년때 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부인인 이선진 선교사님이 먼저 부름을 받아 재촉하는 바람에 결혼하자마자, 함께 예수 순회전도단에서 2년간의 선교와 언어 훈련을 마친 후, 7년 전 LA 교회에서 니카라과로 파송을 받았단다. 지금은 파송했던 교회가 해체되어 지원이 끊어졌지만, 주안예교회의 후원에 동력을 얻어 아내인 이진경 선교사는 미션스쿨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방과 후에는 따로 학생들과 1:1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 이필우 선교사님은 현지인 교회의 요청으로 젊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한편 현지인 성도들과 협력해 깊은 산악지역에 사는 ‘미스키도 원주민’ 선교에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던 날들이 벌써 7년이 지났단다.

이필우 선교사는 오랜시간 학교의 문을 두드린 결과, 2개의 국가 공립학교에서 무보수로 사회와 윤리 강의할 시간을 얻었는데, 이 시간에 복음을 가르쳐도 묵인해 주고 있단다. 방문 중에 고등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 참관할 두번의 기회가 있었다. 학생들과 함께 앉아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소통도 어려웠을텐데 7년이 지난 지금의 강의와 앞으로 7년후에 강의하는 모습을 그려보며, 선교사님들의 열심으로 1-2년안에 이룰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영혼 구원의 결실은 우리의 열정을 너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영역임이 깨달아졌다.

다음 방문지 페루에 도착한 때는 자정을 지난 밤이었다. 박화균 후원 선교사님의 사역지는 수도 Lima에 인접한 곳으로, 약 20년전부터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강단과 전쟁을 선포하고 소탕하기 시작하자, 갱들은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산악지역으로 숨어들어가 횡포와 만행을 저지르자, 원주민들은 그들을 피해 난민이 되어 각지에서 이 사역지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난민촌의 인구가 약 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10월호에 계속>

■ 선교사 소개/ 존 타드-이유진

아프리카에 성경말씀을

저의 삶은 1983년 10월에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미국 캔터키주의 리치몬드라는 작은 도시에서 중학교 수업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몸은 그대로 날아서 아스팔트에 떨어졌고, 곧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응급 뇌 수술과 많은 대 수술을 거친 후,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교통사고 나흘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뇌질환 중환자 병동으로 옮겨진 후로는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많은 치료들을 받으며 다시 근육을 움직이는 연습, 다시 말을 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기억도 초등학교 4학년 때로 되돌아가서, 많은 에피소드를 겪으며 기억도 되찾아야했습니다.

병실 휠체어에 앉아서 내가 진정 정상적인 삶을 다시 살 수 있을까라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었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저의 기억과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곧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영혼들 뿐인데, 바로 이 삶에서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9년간 일을 하며 미국 동서부에 위치한 Southern Evangelical Seminary (신학교) 를 졸업하였고, 이듬해 위클리프 선교사로 허임 되었습니다. 첫 사역으로 저는 성경번역이 좀 더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역을 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경번역 선교사들은 말로만 존재하는 언어에 글자와 사전을 만들고, 또 각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컴퓨터 사용은 성경번역에 있어 필수적이며 성경번역 시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전문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개발되고 성경번



존 타드-이유진 선교사 부부는 성경번역 '위클리프' 소속으로 주안예교회에서 후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역에 사용되어 왔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컴퓨터 전문 선교사들을 통해 세계의 여러 성경번역 선교사들의 사역에 열매를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가대 가을소풍

가을햇살 아래 사과밭 나들이 '동심 속으로'

9월 23일은 1, 2부 성가대가 연합으로 사과밭 야유회를 나선 날이었다.

30여명의 대원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버스로 출발을 했고 몇 분은 개인차로 직접 오시기도 했다.

오랜만에 버스 나들이를 하면서 마치 학창시절의 수학여행을 재현하기라도 하듯 앞,뒤, 옆사람과 나누는 얘기들이 즐겁기만 한 가운데 2시간을 가다보니 어느새 목적지인 Yucaipa 에 위치한 Ros Rios Farm 에 도착했다.

사과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름답게 꾸며진 산책로와 소풍을 하기엔 적당한 넓은 풀밭 그리고 높이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와 함께 후각을 자극하는 바베큐 음식



식점, 아기자기 예쁜 선물가게 등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미리 준비해간 한식 도시락으로 시장을 달랜후에 길게 늘어선 해바라기 산책로를 따라서 걷다보니 드디어 사과나무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끝이 보이지 않을만큼 줄지어 있는 나무에 동그랗고 빨갭게 달려있는 예쁜 사과를 보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과랄고 높은 가을하늘과 나들이에 알맞은 적절한 날씨는 우리의 행복지수를 최상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하루였다.

각자가 원하는만큼 직접 딴 사과를 사 들고 돌아서는 발걸음에는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너무 짧게 느껴진 하루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 오희경 기자 |

■ 영커플 · 코람데오 이벤트

영커플 2목장의 장주성 목사, 박익준 작은목자가 샌디에고로 떠난 2박3일간의 낚시여행 가운데 큰 수확을 거두어, 9월 24일 영커플과 코람데오 청년부에게 푸짐한 참치스시 파티를 열어주었다.

양영 권사와 브렌다 정 집사께서 스시밥과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 주셨고, 스시 셰프이신 에릭 박 형제(코람데오)의 도움으로 식당에서 먹을 법한 스시/사시미를 먹게 되었다. 그외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즐거운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또한, 김현태/박성은 집사의 앞마당에서 따온 포도와, 박찬웅/김혜연 집사댁의 대추, 김아론/이정현 성도께서 준비해주신 Porto's 빵까지... 매우 풍성하고 마음 따뜻한, 영육간에 살 찐 주일이였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어 나누는 영커플의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으며, 나날이 부흥해 가는 영커플들이 자녀 세대까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선교지 기도요청/ 브라질 이경승 선교사



저희 브라질 아마존 병원선 사역입니다. 아마존 가뭄이 심해서 강수치가 심각하게 낮아지며 많은 강변마을과 인디언부족이 식량과 물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주안에 H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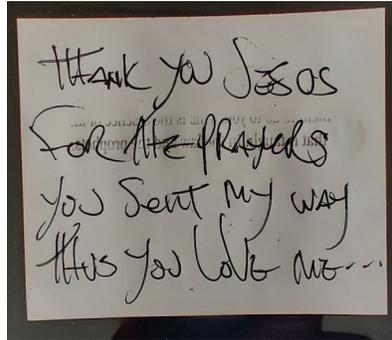
중보기도 · 교도소 방문... 복음으로 닫힌 마음 연다

주안에 호프에 참여 하는 일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 두사람을 정해서 기도문을 올려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도 있고, 그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문을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다.

기도문을 포스팅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진 팀원들이 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 도고기도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개인적 골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것 같다. 올리는 기도를 따라 기도해 주시는 멤버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때로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위로하심이라고 생각한다.

주말 하루를 왕복 4-8시간 작은 차 안에서의 여행도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매주 하기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팀원들은 시간을 만들어 참여한다. 면회 시간이 보통 11시부터 3시인데 그 시간에 대화를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상대의 의중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 또한 성령의 조명없이 불가능하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연을 갖고 작은 공간에서 매일 일정한 사람들만 보다가 전혀 다른 방문객을 만난다는 일에 얼마나 기대되며 흥분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기독교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스스로 벽을 쌓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같은 민족, 같은 언어와 환경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방문을 허락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소식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다.

14살때부터 종신형을 받고 인생을 포기한 젊은이들은 오히려 세상 청년들보다 정결하고 단정하다고 느껴진다. 교육다운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두꺼운 성경을 들고 읽는 일이 어렵다. 팀장은 서점에 가서 말씀 카드를 찾아 보냈

고, 청년은 한장 한장 읽고 자기 필적을 남겨 되돌려보낸다.

자기 소유를 가져보지 못한 감옥에서, 가라고하면 가는대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책을 보내면 비로소 "나의 것"이 생겼다는 자기 소유의 기쁨이 생긴다. 우리처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 늘 배고픔을 느끼는 형제들이 주안 예교회에서 보내준 정해진 금액을 받아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날은 별미중에 별미로 감사와 기쁨이 생긴다.

무기 징역을 받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을 지 모른다는 꿈을 심어주면 가석방 위원회에 청원할 꿈을 갖는다.

매일 변화하고 있고, 안밖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소식을 전할 때 우리의 가슴은 뻥뻥.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오면 너무 감사하다.

누구나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서 찬송을 함께 부르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지만 말씀없이 예배가 성취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감옥에 우리 언어의 예배가 있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긴다.

| 이예스더 기자 |

■ Y자매 면회를 다녀와서

지난 토요일 두번째로 문혜인 사모님과 제가 Y자매님을 방문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자신의 사건을 미디어에 배포하기 위해 접근하는 변호사와 외부인의 방문을 경계하며 만나기를 꺼려했던 Y자매였기에 방문허가를 받고 만나게 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미 전역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Kairos 라는 3박4일 영성훈련(이번달에 Pha와 이재희 형제가 참여합니다)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존



재를 깨닫게 되고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단의 신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지내기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믿음으로 성장하기에는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느꼈습니다. 오랜 방문시간의 대부분을 성경의 이야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셋이서 진지한 믿음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팀원님들의 중보기도덕에 함께한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시간이 금새 흘렀습니다.

손을 잡고 마무리 기도를 한뒤 아쉬운 이별인사를 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Y자매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지난번 만남보다 훨씬 가볍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 김정미 권사 |

운동하러 나오세요~



스포츠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스포츠를 즐기며 교제가 가능합니다. 주님과 함께 운동을 통한 교제 그리고 스포츠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요소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주안예교회 체육국(국장 오찬국 장로)은 주님께서 이 두가지를 모두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함께하시는 장소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으시고 전도의 장소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탁구부 (매주 화 5pm-9pm)

이러한 스포츠종목 중 탁구를 소개 합니다. 탁구는 누구나 아는 스포츠일 것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에 비하여 비인기 종목인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엘리트 체육, 프로 스포츠에서는 그러한 면이 있지만 일반 남녀노소가 즐기기에는 너무나 좋은 스포츠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1988 서울 올림픽 여자 탁구 복식에서 양영자, 현정화 선수가 대한민국



에 올림픽 탁구 최초의 금메달을 선사한 것을 지금도 생생이 기억 나실 겁니다. 88올림픽 이후 여자 복식은 단 한번도 중국외의 다른 나라가 금메달을 가져간 나라가 없습니다. 양영자, 현정화 선수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선수가 지금은 주님의 자녀로 선교사로 탁구 감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께의 여러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4:10)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두선수에게 도전 받는 주안예교회 체육국이 될 것을 소망 합니다.

■ 배드민턴 (매주 수 5pm-9pm, 주일 5pm-7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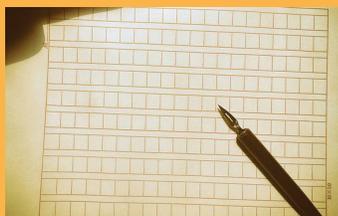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배드민턴 팀을 소개 합니다. 배드민턴은 더위와 추위에 관계없이 일년내내 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입니다.

주안예교회 배드민턴 팀은 현재 고등학생부터 70세가 넘으신 성도님을 포함하여 40명이 넘는 부부, 부모, 형제, 자매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배드민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배드민턴은 실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한 친교 목적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는 주님과 함께 배드민턴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님과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풍성한 배드민턴 대회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배드민턴팀이 주안예교회 공동체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정현철 집사 |



NEWSLETTER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더,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양영, 윤석중,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